



전남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육성 추진

갯돌·예인방·장미영 무용단...3년간 총 2억 원 지원

2009-04-23 17:41:15

갯돌·예인방·장미영 무용단 등 전남지역 3개 단체가 전남도로부터 3년간 최대 7000만 원씩을 지원받아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육성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목포에서 활동 중인 극단 '갯돌'과 나주에 위치한 극단 '예인방',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미영무용단' 3곳을 선정,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육성키로 했다.

지역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은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순수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지원해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산재된 무형자산을 공연예술 콘텐츠로 개발해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추진,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원을 지원받고 도에서 도비 1억 원을 부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향후 3년간 매년 5000만 ~ 70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연말 사업평가를 거쳐 사업성과가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지원으로 재정력이 영세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공연장 대관료, 무대제작비, 홍보비, 출연료 등 공연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며 정규단원과 기획행정인력의 인건비 등에 20% 이상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신영삼 기자]